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nia.com/mem/hanmaum

피로운 일 잘된 일 다 놓고 덤덤히 사세요

남도 내마음과 같게 하려면...

대행스님께 여쭙니다. 저는 향년에서 공부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범부중생이 마음이 답답하여 한 구절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게는 어려운 일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일 있습니다. 저는 남의 마음을 내 마음같이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스님, 남의 마음을 내 마음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오로지 내가 나를 굴릴 줄 알고, 내가 내 몸 속에 있는 자생 중생을 굴릴 줄 알아야만이 바깥에 있는 만생명들의 그 의식을 같이 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약하게 마음을 먹는 자는 그해 미해지지만, 약하지 않고 조건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지혜가 넓은 사람은 반드시 자유스럽게 실천할 겁니다. 약한 자에게는 열쇠가 들어가지 않지만 진실하고 착한 자에게는 열쇠가 들어갑니다. 내 마음을 쓰는 것은 우주간 법계까지 전달이 되는 거니까요. 통신이 되고, 이걸 거짓으로 알아서는 안됩니다. 너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려면 평소 생활하면서 남에게 섭섭하게 말하지 말고 섭섭하게 행동하지 말고 항상 부드럽게 대하면서 상대의 부족한 면을 보더라도 '아, 몰랐을 때 내 모습이지.' 하고 돌아서 놓아준다면 언젠가는 상대와 나라는 생각이 녹아지고 나 나 아님이 없음을 알게 될 겁니다.

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저는 큰스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습이란 것이 자주 튀어나와 어떤 때는 '어라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스님께서는 선도 악도 다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세속의 도덕적 판단으로 악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저에게 인욕이 모자란 탓일까요? 저를 타한 아이들에게 소중하고 귀한 인연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다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눈 높이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 탐욕도 주인공에게 물려 놓는다면, 아

이들이 신바람이 날까요? 아침마다 가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주인공이 사는 생활이 되도록 관하며 하루를 엮습니다. 주인공은 이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알겠지요?

가족 중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속을 썩이더라도 강압적으로 하거나 혹은 욕을 하거나 불 적마다 아단을 친다면 그건 더 빛나가기 쉽습니다. 누구든지 보금자리가 따뜻해야 하고 시원해야 되겠지요?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해야 됩니다. 첫번째도 그렇고 두번째, 세번째도 그 점이 중요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마음과 마음에 불이 들어와야 욕신도 울죽거리든 거지,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엇나가는데 어떻게 그게 잠잠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말이나 짜증으로 타달을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인간 · 꽃 · 새 · 벌레 등
무엇과도 통할수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인간하고는 물론이요, 개미하고도 통하고, 바퀴벌레하고도 통하고, 꽃하고도 통하고, 날아다니는 새하고도 통하고, 무엇이든 통하지 않는 게 없다고 했죠. 지렁이 하나도 곤충 하나도 통하지 않는 게 없다구요. 그런데 하물며 내 식구라는 거, 내 자식이라는 거, 부모라는 거, 남편이라는 거 또는 아내라는 가설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전달을 하지 않고 말로 하거나 화를 내서 도리어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내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모든 식구들에게 불이 들어온다는 그런 믿음과 착념은 지혜를 가지고 불을 켤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스님. 빙고도 싶고, 안기고도 싶고, 물어보고도 싶습니



그림 · 최주현

진실하고 착한 이에게 해인 주어져 남 섭섭지 않게 부드럽게 행동해야

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짧은 시간 헛되이 살아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허물을 어떻게 벗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한 척 하면서 돼지 같고, 고귀한 척 하면서 썩아 같은 자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는지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누구인지...
그렇게 아는 것이 바로 자기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근본이 없다면 잘한 걸 알고 잘못된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자기 근본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은 대르예요. 알면서도

지었으면 알고 받을 것이고, 모르고 지었으면 모르게 받기 마련이죠. 모든 것이 절대적이예요. 그래서 잘못하는 거든 잘하는 거든 일체를 공한 자리에서 다시 맡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우연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으로 괴로워하기보다 하나라도 놓이려고 해야 하겠지요. 그렇게 괴로운 것조차 놓아야 해요. 헛되이 살지 않았나 하는 것도 놓으세요. 그것 또한 본인의 사랑입니다. 괴로운 것도 놓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놓고 덤덤하게 사세요. 때로는 혼자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혼자가 아닌

다. 공생 · 공심 · 공체 · 공용 ·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혼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자기가 누구인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정말 헛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려 보세요.
민지 못하고 방황해요
너무나 사랑하는 큰스님께 인사드립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관계로 청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스님, 제가 너무 못하고 게을러서 생활 속에서 큰스님의 가르침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어요. 머리 속으로는 이렇게 해야 할텐데 하면서도 실제로는 인연에 그달리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는 합니다. 하나라도 실천은 못하면서 매일같이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곤 해요. 큰스님과 여러 스님들과 제 주인공 자리에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이에요. 언젠가 큰스님께 질문을 올렸을 때 '무조건 믿어' 하신 그 말씀을 가슴깊이 새겨 실천하려 하지만 막상 생활 속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아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큰스님, 여기 방황하고 있는 한 젊은이에게 큰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저희 곁에 머물러 주세요.

답답한 것도 망상도 그 속에서 나오지 다른 데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는 거 다니는 거, 밥 먹는 거, 쯤 누는 거,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게 그 속에서 나와요. 그렇죠? 한 놈 속에서 벌어져요. 한 주먹 속에서 벌어진다 그 말이예요.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무조건 그 자리에서 놓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어려울 게 없고, 방황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절절 웃을 뿐이죠.
나라는 게 본래 없어서, 체가 없고 걸리는 것도 없는데 뭐가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무조건 믿고 놓고 지켜보는 작업을 꾸준히 하다보면은 가슴에서 탁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마저 내 안에 다시 놓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외롭지 않게 되고, 부담감지도 않게 되고,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 내 안의 참 주인이 나와 돌아다니게 하게 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 나라는 게 벗겨지고 참 주인이 발현된다 이거죠. 꼭 그렇게 해요. 알겠지요?

되돌려 놓는 공부 잘 안돼요

스님! 처음 이 불법을 만났을 때 그의 환희스런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온 식구가 열심히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권행"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 들만을 위한 전용신발 - 권행 만행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드-반사이론)에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높고 무릎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상위의 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기능: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중형 무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 · 정맥 · 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성요소의 세포로 건네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운반해 나옵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이산화탄소)이 무릎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 비구스님 용 · 회색, 흑색
· 비구니스님 용 · 회색, 흑색

구입문의 0342)742-0296, 742-0297
권행 대표 박동진 합장

누구나 꼭 알아야 할 대체의학과 음양침술 특별강습회

대체의학을 알면 인류는 각종 성인병과 불치병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은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켜 어떤 질병이라도 5~15일이면 효과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강사 이상문
음양감시보감/ 발파로 물파로/ 세계를 이끌어갈 한국 · 한국인

특강요지 대체의학이란 무엇인가?
만병이 오는 원인과 예방법
기의 실체와 음양순환의 원리
병 증상은 수십가지로 나타내도 원인은 두가지 뿐이다

음양침술이란 무엇인가?

(저자가 37년간 응용한 비법입니다.)
음양침술은 우리 인체의 365혈을 대표로 7혈만 응용합니다. 예를 들면 두통, 편두통, 견비통, 요통, 팔, 다리, 손목, 발목, 좌골 신경통, 관절염, 소화불량, 가슴이 답답한 증세, 급제 등으로 고통이 있을 때, 1~2월만 침을 놓으면 1~3분 이내에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나는 것이 음양침술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양침술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다음과 같은 3대 증상을 알게 됩니다.
▶첫째: 남자들의 소화불량으로 가스가 차고 피로가 많이 오는 증상 등등
▶둘째: 여자들의 소화불량, 히스테리, 불면증, 피로권태, 얼굴기미 등등
▶셋째: 침이나 뜸이나 약으로도 치료가 안되는 증상 등등
음양침술은 간단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5시간만 강습을 받으면 가족은 물론이요, 이웃을 위하여도 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상식적으로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대체의학과 음양침술은 범 국민적 차원에 보급하기 위하여 매주 토요일 오후 1시~6시까지 특별 강습회를 갖습니다.
▶첫째: 참석하신 분은 전화로 미리 예약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치 안내 2호선 전철 신대방역에 하차하시고 1번 출구로 나오셔서 47리를 건너면 신림 4동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 옆을 끼고 골목안 50m 정도 들어가셔서 (음양사) 간판이 있는 건물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음양사

서울시 관악구 신림4동 500-1 (201호)
문의처: 02)861-5851~2 / FAX: 02)861-5852